

# Global Goings-on

## 미 국

### 혼외 출산 크게 증가 (Out-of-Wedlock Birthrates Are Soaring, U.S. Reports)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미국 정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미국 내 신생아 10명 가운데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났다.

1970년 이전에는 십대가 미혼 출산 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30대 미혼 여성의 출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30~34세 미혼 여성의 출산은 2002년 이후 34 퍼센트가 증가하였다. 2007년 기준, 혼외출산은 20대 여성의 60퍼센트, 십대 여성의 23퍼센트, 30대 이상 여성의 17 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는 히스패닉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6년, 히스패닉 미혼여성의 11

퍼센트가 출산했으며, 이는 흑인여성 7퍼센트와 백인여성 3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번 조사보고서는(제목: Changing Patterns of Nonmarital Childbearing in the United States)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내 보건통계센터에 의해 발간되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혼외 출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이슬란드에서는 66퍼센트의 신생아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태어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55 퍼센트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2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혼외출산 아동들은 다른 나라의 같은 아동들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나 부모의 생활안정도 면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다. 스웨덴의 경우, 아이들의 발달 및 성취도에 있어서 부모의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크다.

## 영 국

### 기후, 건강에 가장 큰 위협 (Climate 'biggest health threat')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연구진과 랜싯(의학잡지)은 공공보건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기후와 관련된 집단이주의 결과를 부각시키고 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탄소배출량 감소 요청에 힘을 실어 줄 뜻을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여러 양상들을 명확히 파헤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둘 것이다.

런던대학의 기후학자인 Mark Maslin씨는 기후변화가 미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2006년 보고서를 “모든 의료인을 위한 단호한 보고서”라고 불렀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인 초기 대응을 주장했다. 그는 “수십억의 생명을 구하려면 의료인들이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이 보고서가 랜싯에 실린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 이 일을 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료인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학자가 왔다 갔다 하며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우리 모두 끔찍하게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해 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위원회는 세계적 건강 위협에 대한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평가보고서에서 이 위협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과제를 다루었다. “일부 관련 연구자들을 제외하곤 이 논의에 대한 의료계의 로비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수십억 인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주 저자인 세계건강연구원(Institute for Global Health)의 Anthony Costello 교수가 말했다.

평가보고서의 골자는 다음 몇 가지 주제를 포함한다 - 더워진 지구에 적응하는 것은 보건 인프라의 핵심 과제이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편적이고 지역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다. 기후문제와 탄소배출량감소에 대한 정치인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보건 로비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균이 온도변화의 영향을 받아 일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위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자들은 믿고 있다. 기후변화는 가난한 지역을 먼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강타하면서 빈부의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다. 저개발 지역의 인구증가는 기후변화와 함께 식량과 수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다시 대량 이주와 사회불안을 촉발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인도정부는 방글라데시와의 국경 전역 4500 킬로미터에 걸쳐 7피트 높이의 이중 철조망 건설계획을 거의 완성했으며 이 철조망은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대량 이주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건인간활동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and Human Performance)의 Hugh Montgomery 교수는 말했다.

**희망을 위한 틀**

보고서는 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만 내리고 있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를 부인하다가 결국 충격과 절망감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고서가 희망과 행동을 끌어내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Costello 교수는 말한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지침으로 삼아 전 세계 보건분야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또한 2년 후 세계보건산업이 기후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하다"고 BBC 뉴스에서 램싯 편집인 Richard Horton씨가 말했다.

"우리의 할 일은 정상회의까지 2년 동안 이 우선순위를 모든 기후변화회의에서 발표하고,

이에 대한 글을 쓰고 증거와 작업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진정 과학을 통해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BBC, 2009년 5월 14일  
(원문링크: <http://news.bbc.co.uk/2/hi/science/nature/8049061.stm>)

**우간다**

**에이즈 치료제 내성에 취약한 환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AIDS: Questions Help Find AIDS Patients Who Are Vulnerable to Drug Resistance)**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viral load 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Viral load 검사는 1차 치료제(first-line drugs)에 대한 환자의 내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AIDS 환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비싼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아직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간다 Makerere 대학은 미국 및 벨기에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에이즈 치료제의 효과 혹은 실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에이즈 환자들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개발하였다.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IDS Society에 발표된 이 방법은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Viral load 검사보다 더 간편하며 저렴하여 널리 사용되어 온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질병발생을 보여주는 임상증상과 CD4 수를 바탕으로 한다.

의사들은 496명의 에이즈 환자들을 면담했으며, 주요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3일 동안, 지난 4주 동안 그리고 에이즈 약의 복용을 시작한 이래로 약을 복용한 빈도
- 지금까지 이들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 에이즈 치료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 경험
- 여성환자의 경우, 태아의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해 nevirapine을 한번이라도 복용한 경험이 있는지  
- 체중감소 및 발진 여부

이밖에 CD4 수 측정을 위해 혈액 샘플이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이틀간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과 CD4 (에이즈의 진행 정도를 측정하는 백혈구 세포)수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험은 잠재적으로 치료제의 실패를 예측하게 하는 지표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우선적으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viral load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EW YORK TIMES 2009년 5월 19일  
(원문링크: <http://www.nytimes.com/2009/05/19/health/19glob.html?ref=health>)